

궁중회화 속 인물들의 얼굴형 변이에 대한 생물인류학적 접근

우은진¹

¹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역사학과

A Bioanthropological Approach to Facial Shape Variation in Royal Court Painting

Eun Jin Woo¹

¹Department of History, College of Liberal Arts, Sejong University

Abstract : Originating in China and later produced by the loyal court of Joseon, the *Wanghoedo* (王會圖) is a painting depicting the scene of diplomatic envoys from various countries line up to pay tribute to the king. The figures in the painting are portrayed in full-body detail, which has facilitated historical and art-historical analyses of the envoys' attire and hairstyles. This study takes a novel approach by examining the facial features of the diverse figures in *Wanghoedo* from a bioanthropological perspective. Notably, the painting includes labels identifying the countries of origin for each envoy, allowing the current geographic locations to be determined. Facial shapes were classified based on anatomical landmarks commonly used in bioanthropological facial typology.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facial shapes of the figures in *Wanghoedo* reflect a certain degree of variation corresponding to group-specific facial traits in Asia during that period. Envoys from East Asia, who form the largest group in the painting, generally exhibit either elongated or rounded facial shapes. In contrast, envoys from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are classified as having comparatively broader facial widths. Meanwhile, envoys from West Asia and Central Asia are characterized by slender facial shapes with a prominently protruding chin. This study serves as an example of how bioanthropological approaches can be applied to interdisciplinary research.

Keywords : Facial shape, Europrosopic, Mesoprosopic, Leptoprosopic, Asian populations

서론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제작된 “왕회도(王會圖)”는 여러 나라의 외교 사절이 왕을 알현하며 늘어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January 25, 2025; **Revised:** February 26, 2025;

Accepted: March 6, 2025

Correspondence to: 우은진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역사학과)

E-mail: redqin@sejong.ac.kr

선 장면이 묘사된 기록화다. 이러한 내용의 궁중회화는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왕에 대한 공경의 모습을 통해 당대의 태평 성세와 이상적인 정치질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1]. 특히 그림 속에는 등장인물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당시 각 나라 사신의 복식과 두발 장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지금까지 미술사학적인 관점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2,3].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새로운 시도로 “왕회

도”에 담긴 다양한 인물들의 얼굴 형태를 생물인류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왕회도”는 비록 그림이긴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온 인물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어 여기에는 당대 인구집단의 생물적 속성이 얼마간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인물들 간에 관찰되는 생물적 변이 가운데 얼굴형에 주목하여 집단 내에서 관찰되는 생물적 변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당대 인구집단의 생물적 속성이 회화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글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기획하여 전시한 <백제인 - 죽은 자의 이야기, 산 자의 해석 (2024.11.8~2025.2.2)> 도록[4]에 실린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학술지의 성격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왕회도”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신이 포함된 <당염립본왕회도(唐鹽立本王會圖)>를 토대로 인물들의 얼굴형을 비교하였다. <당염립본왕회도>는 6세기 전반 양나라에 조공 온 외국 사신을 그린 <양직공도(梁職貢圖)>의 모사본으로 파악되며, 현재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5]. Fig. 1에서 보듯이 이 그림에는 24개 나라에 속하는 사신 26명의 모습이 표현되었으며, 여기에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사신도 포함되었다. 또 이들 사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당시의 나라 혹은 지역명으로 사신의 머리 위에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 표기된 해당 나라 혹은 지역명은 현재의 명칭과는 상이하기에 해당 지역이 현재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북아역사넷[6]과 이진민의 연구[2]를 참고하여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물들의 출신 지역별 얼굴형의 변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생물인류학적 연구를 위해 개체의 얼굴형을 파악할 때는 좌우 광대뼈 상의 광대활점과 코뿌리점에서 턱끝점 사이의 거리의 비를 토대로 한다[7]. 하지만 해당 그림에 표현된 인물은 모두 비스듬한 자세로 오른쪽 옆얼굴을 중심으로 얼굴이 표현되어 있어 왼쪽 광대활점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얼굴 너비는 오른쪽 광대활점을 중심으로 인물들 간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고 얼굴 길이는 비교적 관찰이 용이

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전체 얼굴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얼굴형을 파악한 후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서부터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얼굴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그림 속의 인물 모두가 오른쪽 옆얼굴을 중심으로 비스듬히 서 있고 대부분 인물의 얼굴에는 턱수염이 있으며, 머리에 다양한 형태의 관이나 두건을 쓰고 있어 얼굴형을 결정짓는 거리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인물의 자세가 동일하기에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물 간 형태 변이를 토대로 최대한 비슷한 유형의 얼굴형을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추가로 해당 사신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면 얼굴형 판단에 편향이 생길 수 있어 지역 정보를 배제한 채 얼굴형을 먼저 평가한 후 해당 사신의 출신 지역을 파악하는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 과

먼저 그림 속에 표기된 24개 나라의 현재 지역과 그 분포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1, Fig. 2의 내용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아시아에 속하는 나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아시아에 속하는 나라가 네 개, 중앙아시아에 속하는 나라가 세 개 포함되어 있다. 이외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속하는 곳이 한 지역씩 있으며, 그림에 표기된 나라 중 노국과 말국, 건평단, 여단국은 현재 어느 곳에 해당하는 곳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얼굴형을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얼굴 너비에 비해 얼굴 길이가 뚜렷하게 길어 가름한 인상을 주는 얼굴형은 백제국, 노국, 무흥국, 고려국, 신라국의 사신이다(Fig. 3). 이들은 현재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동아시아에 속하는 나라의 사신들로 비정상적인 정도로 가름하고 긴 얼굴형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또 노국이 현재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노국의 사신만 유일하게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얼굴형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 사신들과 거의 차이가 없어 중국 혹은 그 일대의 어느 지역에 속한 사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위의 다섯 개 나라 인물의 얼굴형과 비슷하나 얼굴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진 유형으로 예예국과 말국 사람을 들



Fig. 1. Tang Yanlian's Wanghoedo



Fig. 2. The distribution of countries or region to which a figure belongs. The size of the displayed circles indicates the number of individuals from the respective region. The larger the circle, the more figures originate from that region.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current locations of the countries depicted in the painting

Geographical classification	Nations or regions
East Asia (11)	Yeye-guk (예예국, 芮芮國): Mongolian region, Baekje-guk (백제국, 百濟國): Korea, Baekje-guk (백제국, 白題國): Mongolian region, Galbanta (갈반타, 喝盤陀): Northeastern China, Mooheung-guk (무흥국, 武興國): Northern China, Guja-guk (구자국, 龜茲國): Around Xinjiang, Wae-guk (왜국, 倭國): Japanese, Goryeo-guk (고려국, 高麗國): Korea, Silla-guk (신라국, 新羅國): Korea, Tangchang-guk (탕창국, 宕昌國): Northern China, Deunggi-guk (등지국, 鄧至國): Northern China
Southeast Asia (1)	Nangasoo-guk (낭아수국, 狼牙修國): Malay Peninsula region
South Asia (4)	Homildan (호밀단, 胡密丹): Northern India, Jungcheon-guk (중천국, 中天竺): India, Saja-guk (사자국, 獅子國): Sri Lanka, Bukcheonchuk-guk (북천축국, 北天竺國): India or Pakistan
Central Asia (3)	Woojeon-guk (우전국, 于闐國): Central Asia region, Joogoga-guk (주고가국, 周古柯國): Afghanistan region, Abaldan-guk (아발단국, 阿跋檀國): Central Asia region
West Asia (1)	Pasa-guk (파사국, 波斯國): Iran
Indeterminable (4)	No-guk (노국, 虜國), Mal-guk (말국, 靺國), Geonpyeongdan (건평단, 建平蠻), Yeodan-guk (여단국, 女蠻國)



Fig. 3. Face shapes with an extremely accentuated slenderness



Fig. 4. Face shapes with slightly reduced slenderness



Fig. 5. Face shapes with a protruding chin and Western facial features

수 있겠다(Fig. 4). 예예국은 현재 몽골 일대의 지역으로 파악되고 말국은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Fig. 4에서 보듯이 예예국과 말국 사람의 얼굴과 비교하여 얼굴 너비와 얼굴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얼굴형으로 왜국, 등지국, 탕창국 사신이 있으며, 이들보다 얼굴 길이가 너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짧아진 유형은 파사국과 낭아수국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왜국, 등지국, 탕창국은 모두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의 나라이며 세 나라 사신의 얼굴형이 상당히 유사한데 유독 왜국 사신의 얼굴만 피부색이 다소 어둡게 표현된 것이 특이하다고 할 만하다. 또 파사국과 낭아수국은 각각 현재의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파악되며 이들 나라의 사신은 동아시아 지역의 사신들과 얼굴형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피부색 역시 살짝 어둡게 표현되었다.

한편 기본적으로 가름한 얼굴형이지만 앞서 살펴본 유형에 비해 미간과 아래턱 끝이 조금 더 돌출된 얼굴형으로 주

고가국, 여단국, 건평단, 아발단국 사신의 얼굴형이 있다(Fig. 5). 여기에서 주고가국과 아발단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나라로 파악되나 여단국과 건평단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이들 네 나라 사신의 얼굴은 앞서 살펴본 지역의 인물들에 비해 이목구비가 좀 더 서구적인 특성을 보인다. 또 여단국 사신의 피부가 다른 나라의 사신에 비해 살짝 짙게 표현되었다. 반면 Fig. 5에서 보듯이 주고가국, 여단국, 건평단, 아발단국 사람의 얼굴형과 비교해 좌우 광대활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넓고 턱 끝이 더 두드러진 유형은 사자국, 우전국, 구자국 사신이며, 이들의 경우 코도 이전 집단과 비교하면 더 높고 긴 게 특징적이다. 여기에서 사자국은 현재 스리랑카, 우전국은 중앙아시아 일대의 지역, 구자국은 중국 신장 주변의 지역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현재의 스리랑카로 파악되는 사자국 사신의 피부색만 다소 짙게 표현되었다.



Fig. 6. Faces shapes with a broad facial width



Fig. 7. The representative facial types classified in this study

다음으로 사자국, 우전국, 구자국 사신과 마찬가지로 좌우 광대활점 사이의 거리는 넓지만 앞의 세 나라 사신의 얼굴과는 달리 턱 끝이 둥글며 전반적인 얼굴 형태가 둥근 유형으로 백제국, 중천국, 북천축국 사신이 있다(Fig. 6). 백제국은 현재 몽골 일대의 지역으로 파악됐지만 중천국과 북천축국은 모두 서아시아로 각각 인도나 인도 혹은 파키스탄 지역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백제국 사신의 피부색만 살짝 짙게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Fig. 6에서 보듯이 얼굴 너비가 극단적으로 넓은 유형인데 여기에 호밀단, 갈반타 사신의 얼굴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호밀단은 인도 북부 지역으로, 갈반타는 중국 북동부 지역 일대의 나라로 파악되며 호밀단 사신의 경우 피부색이 살짝 짙게 표현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얼굴 유형을 정리하자면 Fig. 7의 왼쪽부터 비정상적일 정도로 긴 얼굴형(A), 얼굴 너비는 비슷하나 얼굴 길이가 다소 짧아진 얼굴형(B), 얼굴 너비가 다소 넓어진 얼굴형(C), 전체적으로 가름하지만 미간과 아래 턱 끝이 돌출된 얼굴형(D), 전반적으로 둥글고 아래 턱 끝도 둥근 얼굴형(E), 얼굴 너비가 극단적으로 넓은 형(F)으로 분류된다(Fig. 7).

고 찰

“왕회도” 속 인물의 얼굴형에는 당대 아시아 내 집단별 얼굴형의 변이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먼저 가장 많은 수

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지역 출신 사신의 얼굴형은 대체로 길거나 둥근 얼굴형으로 표현됐지만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신은 동아시아 지역의 사신에 비해 비교적 얼굴 너비가 더 넓은 얼굴형으로 분류된다. 반면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신은 가름하지만, 아래턱 끝이 앞으로 돌출된 특성을 보인다. 이외 노국과 말국은 얼굴 너비에 비해 얼굴 길이가 뚜렷하게 더 긴 가름한 얼굴형, 건평단과 여단국 역시 가름하지만 턱 끝이 발달하고 코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파악된다. 단 여기에 건평단과 여단국이 현재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왕회도” 속 인물을 통해 확인되는 얼굴형의 변이는 과거 체질인류학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집단에 따른 형태적 특성을 분류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던 주제이다. 특히 초창기의 연구는 집단별 형태적 변이를 토대로 그러한 특성을 민족의 기원이나 인종의 특성과 연결하기도 했다[8]. 그러나 20세기 후반 체질인류학이 생물인류학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인구집단 내에서 확인되는 형태 변이 혹은 그로부터 비롯된 속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진화사와 민족의 역사를 반영하는 적응의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집단의 머리형과 얼굴형은 환경적 요인을 적게 받으며 일생 동안 큰 변화가 없는 특성으로 인해 한때 인종을 구분하는 기준 부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9,10].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의 머리 및 얼굴형은 유전적 요인 외에 성별, 기후와 영양상태,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11].

이 연구에서 검토한 생물인류학적 얼굴형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미간 아래 코뼈의 가장 낮은 코뿌리점에서 턱뼈 아래 경계의 가장 낮은 지점인 턱 끝점까지의 거리, 좌우 광대뼈 활의 가장 바깥 돌출지점인 광대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수치의 비를 토대로 하며, 크게 넓은 얼굴형, 중간 얼굴형, 좁은 얼굴형의 범주로 분류된다[12]. 여기에서 중간 얼굴형은 대체로 둥근 얼굴이며 좁고 긴 얼굴형은 긴 얼굴로 인식된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현대 한국인은 중간 얼굴형이라는 결과도 있고[13] 좁은 얼굴형이라는 연구도 있다[10]. Lee 등(2000)[10]은 특히 현대 한국 청년은 좁은 얼굴형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좁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에 비해 더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는 한국인의 얼굴형이 두 가지 즉 북방형과 남방형으로 구분되는데 북방형은 긴 얼굴, 남방형은 둥근 얼굴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14]. 한편 중국인의 경우는 중간형의 얼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며[15], 일본인의 경우 고분시대에는 넓은 형이 많았으나 20세기 초를 전후로 이전보다 좁은 얼굴형이 뚜렷하게 더 높은 빈도로 확인된다고 알려져 있다[16]. 여기에서 일본인의 경우 한국인처럼 현대로 오면서 얼굴의 형태가 점차 가름해지는 변화를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유럽과 미국인 대상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17,18].

“왕회도” 속에 등장하는 동아시아인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몽골 일대 지역의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본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들 가운데 넓은 형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없고 길거나 둥근 얼굴형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대인 집단 대상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현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군집분석 결과 한국인이 북중국, 일본인과 가장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19] “왕회도” 속 인물들 역시 한국과 북중국 지역에서 온 인물들의 얼굴형이 대체로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이외 현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인 역시 중간형 얼굴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20] 특히 남성의 경우 중간형 얼굴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21]. 이 연구에서 검토한 “왕회도” 내에는 인도 인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인물이 세 명 등장하는데 모두 좌우 광대활점 사이의 거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대체로 넓어 중간형이나 넓은 얼굴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 북부 이란인의 경우 넓은 얼굴형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연구에는 서아시아 집단에 속하는 인물이 한 사례(파사국)만 존재하여 얼굴형의 경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외 현대 말레이시아 집단의 경우 중간형의 얼굴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좁고 긴 얼굴형도 5퍼센트 내외의 빈도로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7]. 이와 관련하여 “왕회도” 속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신이 단 한 명(낭아

수국)만 등장하여 해당 집단의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 남아시아 지역으로 파악되는 나라의 사신은 네 명으로 이들 모두 얼굴 너비가 비교적 넓은 편이지만 오늘날 스리랑카로 추정되는 사자국 인물의 경우는 코가 길고 턱 끝이 앞으로 돌출되어 인도 인근 지역으로 추정된 세 개 나라 사신의 얼굴과는 다소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듯 회화 작품이긴 하나 “왕회도” 속 인물의 모습에는 현대 아시아 집단에서 관찰되는 생물적 변이가 얼마간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림 속 인물은 무려 천오백 년 이상 된 인물들 6~7세기 무렵 중국에서 유행한 화풍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회화 속 등장인물의 얼굴형이 현대인 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예를 들어 해당 그림이 궁중 회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궁중회화가 갖는 특성이 그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과 인물의 표현 방식에 있어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화풍을 따랐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동아시아인의 얼굴형은 여타 집단에 비해 지나치게 길고 좁게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 과장된 얼굴형을 현실의 얼굴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집단의 얼굴형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므로[22] 그림 속 인물 간 얼굴형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려면 각 인물의 성별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속 등장 인물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이기에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왕회도” 속 인물의 경우 지금까지 여성으로 표현된 사례가 없어 모든 인물이 남성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얼굴형을 관찰하였으나 여성이 표현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여단국 사신의 경우 길게 뺏아 내린 머리와 얼굴의 표현이 여성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한다. 한편 노화에 따른 변이도 얼굴형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23]. 구체적으로 신라 사신은 매우 젊어 보이지만 고구려 사신은 얼굴에 주름과 수염이 있어 나이가 꽤 들어 보이고 건평단, 사자국, 우전국 사신 역시 턱 끝의 길이가 짧고 아래턱의 각도가 나이 든 사람의 특성을 반영한 모습일 수 있다. 이렇듯 얼굴형을 비롯한 표현 형질에서 드러나는 변이를 범주화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형질은 연속적 속성을 갖는 변이이므로 이를 지수화 혹은 범주화하여 평가할 경우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옛 회화작품에 당대 다양한 지역의 인물이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왕회도” 속 인물의 형태 변이를 파악하는 작업은 분명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특히 고구려와 같이 무덤 벽화를 남기지 못한 백제나 신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귀한 자료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표현된 인물의 모습을 생물인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시도는 의미가 있

다고 본다. 또 이는 생물인류학적 접근이 여타의 학문분야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도라 평가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측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당시 화가의 눈에 비친 각 나라 사신의 지역적 특색과 더불어 중국인의 시선에서 본 주변 나라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고려하여 그림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 사

본문의 그림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를 제안하고 그림의 해석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성백제박물관 정영래 학예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REFERENCES

1. Pak JH. Production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paintings of Tribute Mission to the Sone of Heaven in the late Joseon period. *Art Historical Research*. 2013;277:105-32. Korean.
2. Lee J. A study on the costumes of the envoys from the three kingdoms painted in Wanghoido (王會圖) and Bungekipjodo (蕃客入朝圖).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Korean.
3. Jeong EJ. The historical recognition of China to the Korean race in Chinese Zhigong-tu.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2015;42:77-124. Korean.
4. Seoul Baekje Museum. *People - the story of the dead, the interpretation of the living*, Seoul Bookstore; 2024. pp. 124-33. Korean.
5.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cited 2025 January 24]. Available from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785>
6. Northeast Asian History Network. [cited 2025 January 24]. Available from <http://contents.nahf.or.kr/>
7. Yesmin T, Thwin SS, Urmi SA, Wai MM, Zaini PF, Azwan K. A study of facial index among Malay population. *J Anthropol*. 2014;1-4.
8. Berry AC, Berry RJ. Epigenetic variation in the human cranium. *J Anat*. 1967;101:361-79.
9. Krogman WM, Iscan MY. *The human skeleton in forensic medicine*. Illinois: Charles Thomas Publisher; 1986.
10. Lee KH, Paik DJ, Koh KS. Anthropometric study on the face of modern Korean youth I. *Korean J Phys Anthropol*. 2000; 13:345-55. Korean.
11. Susanne C, Defrise-Gussenhoven E, Van Wanseele P, Tassin A.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head and face measurements of Belgian twin. *Acta Gent Med Gemellol*. 1983; 32:229-38.
12. Kumari KL, Babu PV, Kumari PK, Nagamani M. A study of cephalic index and facial index in Visakhapatnam, Andhra Pradesh, India. *Int J Res Med Sci*. 2015;3:656-8.
13. Youn KH, Hu KS, Song WC, Koh KS, Kim HJ. Fabrication of Korean skull model. *Korean J Phys Anthropol*. 2010;23: 229-34. Korean.
14. Choi C, Chou Y, Oh J. Classification of fundamental types of Korean faces and generation of the faces for each province. *Proc Inst Electronics Engineers Korea*. 1996;19:943-6.
15. Kurnia C, Susiana S, Husin W. Facial indices in Chinese ethnic students aged 20-22. *J Dent Indones*. 2012;10:1-4.
16. Hossain MG, Saw A, Ohtsuki F, Lestrel PE, Kamarul T. Change in facial shape in two cohorts of Japanese adult female students twenty years apart. *Singapore Med J*. 2011;52:818-23.
17. Jantz RL, Jantz ML. Secular change in craniofacial morphology. *Am J Hum Biol*. 2000;12:327-38.
18. Gyenis G. Rapid change of head and face measurements in university students in Hungary. *Anthrop Anz*. 1994;2:149-58.
19. Koh KS, Son HJ, Rhee EK, Park SJ, Kim HJ. Anthropological study on the facial flatness of Korean from the historic to the modern period. *Korean J Phys Anthropol*. 1999;12:211-21. Korean.
20. Krishan K, Sharma A. Estimation of stature from dimensions of hands and feet in a North Indian population. *J Forensic Leg Med*. 2007;14:327-32.
21. Uppada UK, Tauro DP, Senthilnathan KP. Anthropometric analysis of Indian face: a systemic review. *J Maxillofac Oral Surg*. 2024;23:451-61.
22. Jeyaseelann, Irfan M, Leng CW, Perera LR, Palaniappan KK, Fatima Z. Facial index among the ethnic races of Malaysian population-an anthropometric study. *J Dent Med Sci*. 2016; 15:97-101.
23. Kim HJ, Kim KD, Choi JH, Hu KS, Oh HJ, Kang MK, et al. Differences in the metric dimensions of craniofacial structures with aging in Korean males and females. *Korean J Phys Anthropol*. 1998;11:197-212. Korean.

간추림 :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제작된 “왕회도(王會圖)”는 여러 나라의 외교 사절이 왕을 알현하며 늘어선 장면의 그림으로 등장인물이 전신으로 표현되어 있어 당시 각 나라별 복식과 두발 장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지금까지 주로 미술사학적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새로운 시도로 “왕회도”에 담긴 다양한 인물들의 얼굴 형태를 생물인류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해당 그림에는 사신이 속한 나라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 이 나라의 현재 위치를 토대로 인물들 간의 얼굴형을 생물인류학적 얼굴 유형의 분류를 위해 사용하는 해부학적 표지점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왕회도” 속 인물의 얼굴형에는 당대 아시아 내 집단별 얼굴형의 변이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지역 출신 사신의 얼굴형은 대체로 길거나 둥근 얼굴형으로 표현된 반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신은 동아시아 지역의 사신에 비해 비교적 얼굴 너비가 더 넓은 얼굴형으로 분류된다. 반면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신은 가름하지만 아래 턱 끝이 앞으로 돌출된 특성을 보인다. 이번 시도는 생물인류학적 접근이 여타의 학문분야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지만 회화 작품 속의 인물을 연구자료로 하고 있기에 추후 화가의 눈에 비친 여러 나라 사람의 지역적 특색과 더불어 중국인의 시선에서 본 주변 나라에 대한 인식 역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찾아보기 낱말 : 얼굴형, 넓은 얼굴형, 중간형, 좁은 얼굴형, 아시아집단